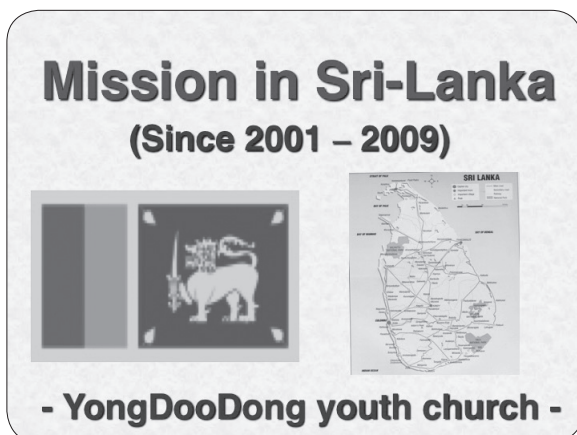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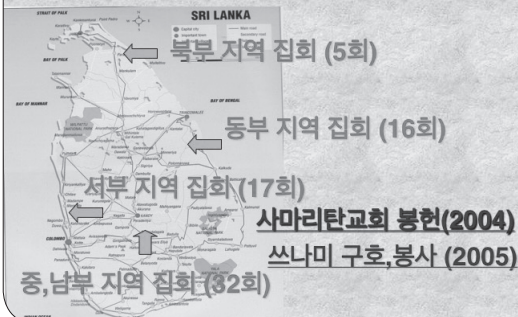
사례 (1) 미션트립으로서의 단기선교 ✓

예배와 공동체를 경험케 하는 선교

조세영 금성교회



*** 2001년~2009년 스리랑카 선교 ***
(9번 선교 / 250명 참여 / 70번의 집회)
*** 선교형태 :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집회**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1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14:12)

(Give me this Mountain) 15명 참여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2nd)

와서 우릴 도우라 (행16:9)

(Come & Help us) 20명 참여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3rd)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40:1)

(Comfort my people) 27명 참여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4th)

일어나 다시 세우자 (느2:18)

(Let us Arise & Rebuild) 30명 참여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5th)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고후6:2)

(Now is the time) 31명 참여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6th)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7:14)
(Heal Our Land) 38명 참여



.....

.....

.....

.....

.....

.....

.....

.....

.....

.....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7th)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8:17)
(Seek me, Find me) 32명 참여



.....

.....

.....

.....

.....

.....

.....

.....

.....

.....

스리랑카 단기선교 연혁(8th)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행22:15)
(You will be witness) 27명 참여



.....

.....

.....

.....

.....

.....

.....

.....

.....

.....

.....

.....

.....



[illegible][illegible][illegible]



✓ 용두동청년교회 단기선교 개요

1. 대상국가 :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Sri-Lanka)
2. 선교연혁 : 2001년~ 2009년 9회 방문
3. 선교형태 : 거리, 마을 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한 전도 집회 / 미션 트립
4. 선교기간과 참여 인원 : 평균 10일 (평균 30명 참여)
5. 선교보고 : 총 9번 선교 / 250명 참여 / 70번의 전도 집회
전도 열매로 사마리탄 교회 봉헌 (2004) / 목회자 세미나 개최 (2004)
쓰나미 구호, 봉사 (2005) / 신학교 지원 및 교회지원 (2006~2009)

1. 미션트립의 핵심은 **미션(Mission)**찾기이다.

- **미션(mission)의 의미?** 임무 / 전도 / 부르심, 사명
-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우리는 왜 단기선교를 가려고 하는가?
단기선교를 통해 개인이, 공동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기, 선교비전 세우기, 팀웍 훈련, 훈련을 통한 영적성장 등 다양한 목표가 있으나,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자신의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 및 선교적 역량(인적, 물적, 전략적)수준을 파악하고, 바른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차례 단기선교를 진행한 교회는 이전의 선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립하라.
- **목표, 지향점에 따라 대상국가, 선교의 형태, 선교의 구성이 달라진다.**
-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목표도 중요하다.**
-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없는 단기선교는,**
선교이후 탈진(burn out) 현상이나 윤형(輪形) 현상으로 나타난다.
- **사전 선교훈련의 준비가 두 가지 미션과 선교 전체의 성공의 여부를 좌우한다.**
단기선교는 사전 선교훈련으로 씨를 뿌리고, 선교현장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 **선교현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답사, 이메일, 전화)을 구체적으로 하라.**
사역기간, 사역내용, 사역일정,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 **단기선교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중요하다.(홍보,모집,훈련,진행,사후일정까지)**

II. 미션트립의 중심은 **예배와 사역**이다.

- **선교의 시작과 끝, 하루의 시작과 끝, 과정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라.**
찬양, 말씀 묵상, 선교현장과 공동체, 자신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 **사역과 예배뿐 아니라, 생활훈련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게 하라.**
선교의 모든 순간 예배의 기쁨, 연합과 일치, 섬김,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게 한다.
- 선교현장에서 **사역과 생활 등 모든 일정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라.**
- **가르치는 자, 돕는 자, 주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친구가 되라.**
- 선교현장의 필요에 맞는 **철저한 사역 준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현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사역 후 각 개인과 팀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 차량이동, 대기시간, 준비과정의 **짜투리 시간에 대한 리더의 준비가 필요하다.**

III. 미션트립은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 **진정한 하나님 나라(바실레이아)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라.**
-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는 그 날의 사역과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 선교사에게, 현지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눔으로써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축복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 **팀 안에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마무리하기 전,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반드시 풀고 팀웍을 항상 좋게 유지하라.**
- 사전 선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웍 및 생활훈련이다. 건강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를 위해 1박2일의 리트릿으로 팀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
- 은사에 따라 **역할과 사역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잘 감당하도록 코칭한다.
-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꼭 기도후원의 밤을 개최하라.**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 기도후원의 밤은 선교일정 안내, 세족식, 사역소개,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구성한다.

IV. 미션트립의 열매는 **체험과 변화**이다.

– **선교지에서는 체험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sharing)하는 시간을 가지라.**

디브리핑은 선교여행의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말한다.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간을 가져라. 선교여행 마지막 날에는 선교사와 함께 나눔의 시간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 성찬식을 마지막 으로 가지면서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유익할 것이다.

- 먼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결단, 변화들을 점검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개인적인 평가) 그 후 팀으로 함께 모여 서로 나눔으로 선교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팀에 대한 평가)

– **매일의 일지를 통해 그날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

확실하다 생각되는 기억보다 흐릿한 메모가 오래 남고, 변화의 동인(動因)이 된다.

–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체험과 변화를 나누어라.**

선교여행을 위해 기도동역자가 되어 주신 분들과 물질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분들에게 꼭 감사를 전하라.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이메일이나 전화) 전하라.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하고 핵심적인 영역만 한 두 가지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부정적인 보고 혹은 선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

– **선교동원 자료를 작성하라.**

다녀온 선교지가 어떤 곳이고,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알리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동원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책자 형태의 기도 가이드북, 도시 프로파일, 종족 카렌다. 기도카드, 사진 및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이 있다.

– **선교보고 예배를 다양한 형태로 가지라.**

잘 준비된 보고회는 교회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다. 주일오후 예배, 수요일예배 등에서 20-3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 내용으로는 현지어 찬양, 간증, 그 다음으로 종족(지역) 소개를 한 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면 된다.

- **선교여행의 열매는 변화된 삶이다.** 단기선교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례 (2) 비전트립으로서의 단기선교 ✓

선교적 비전을 찾아주는 선교

권용주 원주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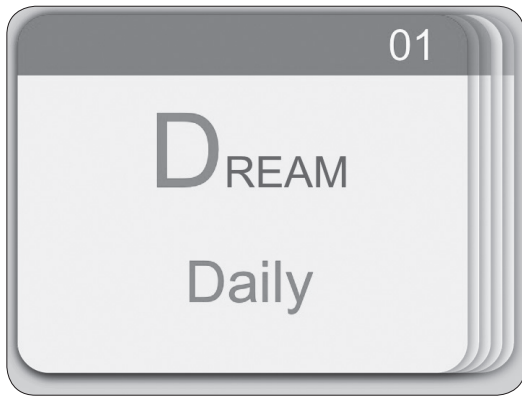
원주 제일 감리교회 청년부는 <다드림 공동체>입니다.

다드림은 첫째, 전부를 드리는 공동체, 둘째, 많은 꿈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로 사명과 비전을 품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원주제일교회는 오랜 전통의 보수적 성향과 고령화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고여 있는 물 같았던 <다드림 공동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2년 전부터 다드림 공동체는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원주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다드림은 <단기선교는 DREAM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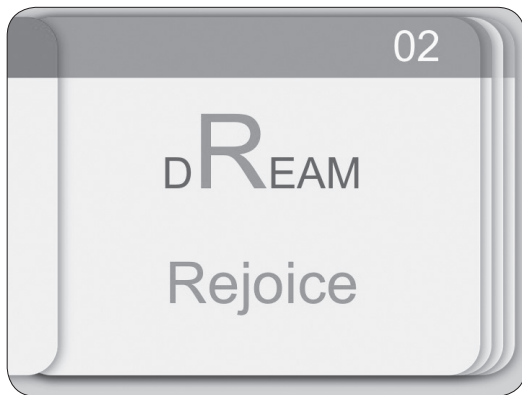
.....

.....

.....

1. DREAM : Daily (매일)

- Vision Trip의 D-day를 착각하지 마라.
- Vision Trip은 준비하는 순간부터 매일이 선교이다.
- Vision Trip을 진행하는 모든 시간 안에 매일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Q.T, 감사고백, 성경읽기, 릴레이기도)
- Vision Trip을 통하여 매일 실천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라. (선교지 중보기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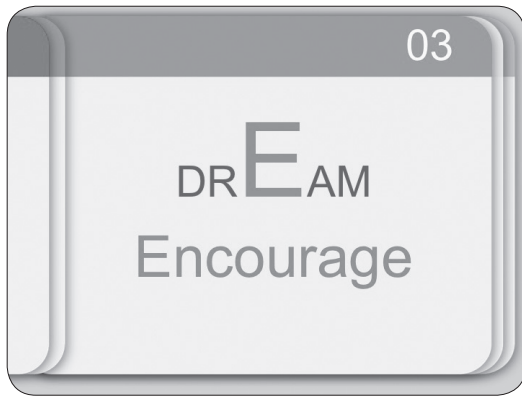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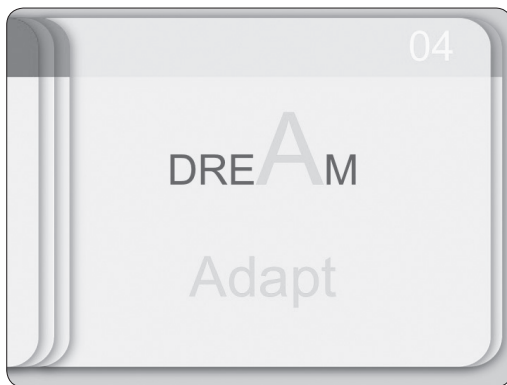
2. DREAM : Rejoice (기쁨)

- Vision Trip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가라.
-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작은 순간의 기쁨도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누어라.
- 선교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며 축제이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차 나누기, 바자회, 현지인들과의 작은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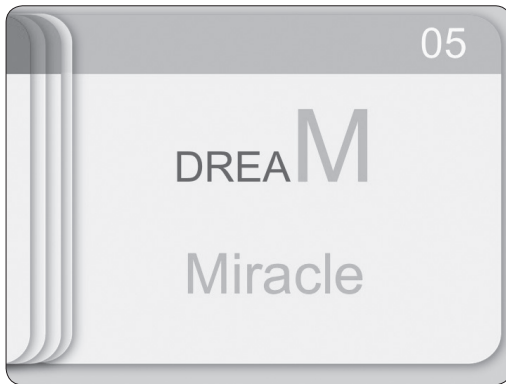
3. DREAM : Encourage (격려)

- Vision Trip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임을 기억해야 한다.
- 혼자 열걸음 걷는 것보다 함께 한걸음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거울을 바라보지 말고, 창문을 바라보라. (짝 선정 및 짝 미션)
-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Vision Trip 기간 중 칭찬 릴레이)



4. DREAM : Adapt (적응)

- Vision Trip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연속이다.
(현지에 대한 문화, 언어, 종교, 음식, 전통 등을 철저하게 리서치 한다.)
- 적응은 나를 포기함으로 시작된다.
(새벽시간을 포기하라. 나의 취향을 포기하라. 나의 습관을 포기하라.)
- 적응은 반복과 지속으로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Vision Trip을 통하여 지속적 선교에 대한 사명을 세워가야 한다.)



5. DREAM : Miracle (기적)

- Vision Trip은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선교 후 모든 팀원들에게 선교 후기를 작성하게 한다.)
- 변화는 기적이다.
(변화되는 팀원들과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 Vision Trip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2년 전 DREAM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원주제일 다드림의 Vision Trip은 이제 그 순간마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Mission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적 비전을 찾아주는 선교로서 Vision Trip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공동체에게...

이제 망설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시작 하십시오. 선교는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앞에 결단을 가지고 발을 내딛으면 그 시작을 통하여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Vision Trip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훈련되어진 팀원들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일꾼들과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새로운 도전과 동기 부여가 되어져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례 (3)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선교 ✓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선교

심은수 베다니교회

단기선교는 기본적으로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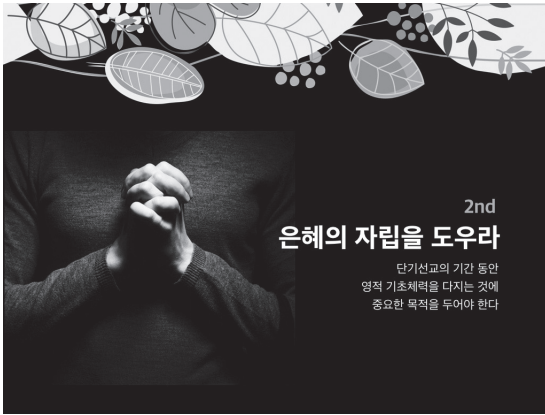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하셨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훈련시키셨다. 단기선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청년 공동체의 리더인 담당 목회자와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 단기선교는 제자들이 가는 선교가 아니다.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가 되어가는 이들이 가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감수하고 떠나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의외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1.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라.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다. 어떠한 시간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몇 달의 준비 기간과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동안 많은 추억을 공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담당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단계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생일이나 개인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축복을 해주는 시간, 개개인의 영적 수준에 맞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의 영적 단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MT)를 다녀온다거나 선교 기간 중에 개인에게 적절한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받은 은혜를 수시로 서로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간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교를 다녀오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함께 모여 선교 영상도 보고 또 서로의 다짐도 새롭게 나누는 것은 다시 은혜를 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2. 은혜의 <자립>을 도와라!

함께 하는 것의 유익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 함께 할수록 성장의 가속도가 생기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단기선교의 기간 동안 영적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에 중요한 목적을 두어야 한다. 영성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훈련시킨다. 묵상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개인으로 있을 때에도 지속하게 한다. 그리고 선교의 기간 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은혜가 홀로 있을 때에도, 단기 선교가 끝났을 때에도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립하지 못하고 분위기에만 휩쓸려서 근근이 이어가는 영성은 언제든 무너지기 쉽다. 오히려 영성의 요요현상 때문에 선교 후에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기도와 말씀의 짝을 정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서로 점검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시켜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3. 예배의 <맛>을 알게 하라.

단기선교는 단기간에 선교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선교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믿음을 훈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다. 그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오전 예배를 CHC, FCBC 두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다. 찬양도 오래 하고, 또 워십이나 다른 공연들도 청중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을 보냈다. 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침묵으로도 하고, 부르짖으면서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모세와 아론, 홀처럼도 기도해봤다. 그런데 그렇게 3시간 가까이 흐르는 예배의 경험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 그 단기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와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그 때의 친구들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선교지에서의 예배의 경험은 이제까지 맛있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체에 시큰둥했던 청년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된다.



4th

죽는 훈련을 지속하라

청년들뿐 아니라 청년목회자도
단기선교를 통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 <죽는> 훈련을 지속하라.

청년들은 열정도 많고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면 목숨 걸고 뛰어드는 긍정적 성향을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세대에 비해 기복이 크고 감정적이다. 따라서 영성의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선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후기 모임까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예배하고 소그룹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전에 몰랐던 개개인의 개성과 장점, 매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동안 포장되고 통제되었던 개성(개같은 성질??)이 드러나기도 한다. 부대에서 훈련만 받던 군인이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히 알고 있던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뗏속 깊이 와닿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 공동체의 리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눅9:46)고 헛짓을 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놈이 있지를 앎나(막10:37) 별의별 놈이 다 있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인간 말종도, 최측근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놈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뿐 아니라 청년목회자도 단기선교를 통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위기를 최대한 즐기고 그것을 이겨낼 지혜와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고, 예방주사를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훨씬 잘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5. <세> 사람, <새> 사람을 발굴하라.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택하신 것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집중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이며 청년 공동체에서도 다른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선교는 그런 가능성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된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평소 보아온 청년들 중에 단기선교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키우고 헌신시킬 사람들을 찾아내서 훈련시킨다면 단기선교의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청년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리더급을 키워내는 것이다. 잘못 접근해서 특정인과 지나치게 가까운 인상이 주어지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된다. 더욱이 그 대상이 예쁘고 인기 좋은 이성일 경우에는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영적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을쯤 다음 해의 리더나 팀장, 임원을 세울 때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을 세우게 되는 것은 이미 단기선교가 갖는 훈련의 성격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청년 사역 전체로 봤을 때에도 청년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걸고 목회를 돕고 동역할 수 있는 리더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좋은 장이 바로 단기선교가 된다.



6. <내> 사람 만들지 말라.

일상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공유한 목회자와 평신도는 그 친밀함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사람도, <세> 사람도 발굴하고 리더십을 세워가게 된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청년들이 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사람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네>가 하는 일이 도무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마7:23)

우리는 단기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을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욕심낼 필요도 없다. 그저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 단기선교의 열매는 그 속에서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사례 (4) 단기선교 오답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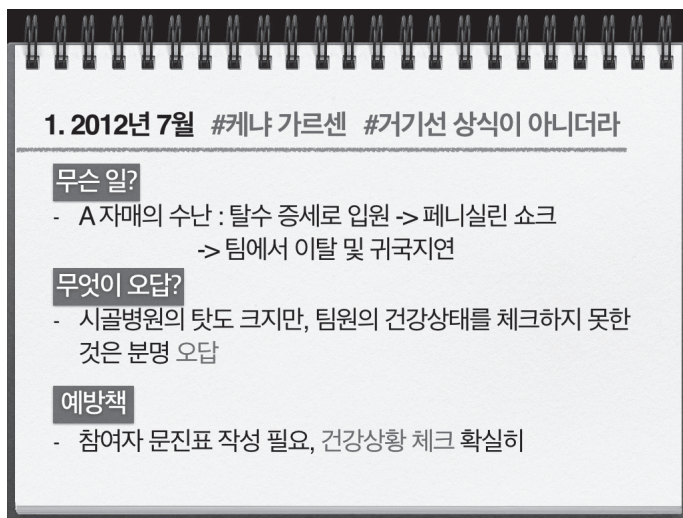
준비하며 겪는 시행착오와 해법

김영중 주안교회

√ 부끄러운 노트를 열며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을 심각하게 못했습니다. 수학을 못해서 자연계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고3이 되어서 제 수학실력이 나름대로 향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학의 정석이 아닌, 오답노트 덕이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기 전에는 한 번 틀렸던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되어도 대책 없이 틀리고 같은 후회가 반복되던 것이, 오답노트를 쓰며 한 유형, 한 문제, 한 주제에 대해 외산상담臥薪嘗膽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답노트의 유익은 낯선 환경에서 내 전문분야가 아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단기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줄 수도 있는 가벼운 실수도 있겠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도 못타보고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단기선교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글은 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체험한 단기선교의 돌발사항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저희도 물론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과감하게 공개하는 저의 단기선교 오답노트입니다.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NGO 단체 행사로 8명의 청년이 전도사 인솔로 우물파기현장탐방을 위해 출국

A 자매의 수난 : 물갈이로 인한 탈수증세 → 시골병원입원 → 항체검사 없이 페니실린 항생제 투여 → 페니실린 쇼크반응(anaphylaxis)으로 기도 막힘 → 나이로비로 옮겨 큰 병원에서 치료 → 팀에서 이탈 및 귀국지연

2) 무엇이 오답이였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시골병원에서 3~5%의 발생률을 무시하고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한 것 (여기서는 자극히 상식인 것이 거기서는 상식이 아니더라)

그러나 참여한 팀원의 건강상태를 미리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것은 분명 <오답>.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문진서 작성 등을 통해 응급상황 시 의사가 알아야 할 것들 면밀히 체크 (지병, 복용하는 약, 가족력, 수술경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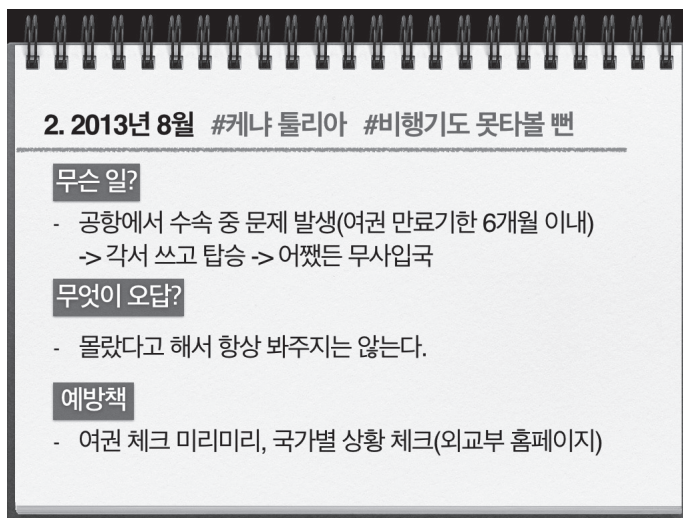
건강과 관련된 기본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음

(환자가 말도 못할 시 대비, 영문이면 더 좋음)

공용 기본 구급약 외에 본인만 필요한 특수비상약은 꼭 챙기도록 공지

필요한 예방접종은 미리미리 (파상풍, 황열병 등은 가기 직전에 맞으면 소용없음)

*자세한 정보는 국립검역소 <http://nqs.cdc.go.kr/> 홈페이지 참조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출발 당일 공항 도착 → 탑승권 수속 중 문제 발생 → 팀원 1명의 여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내임을 발견 → 입국거절사유라며 항공사에서 탑승거절 → 방법이 없겠냐며 간청(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 → 항공사 케냐현지지사 통화 → 입국거절조치를 당해도 책임 안 묻기로 서명하고 탑승 → 다행히 무사입국

2) 무엇이 오답이였는가?

그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봐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항공권 발행업무를 대행해준 여행사에서 체크해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여행사가 그렇게 친절 & 꼼꼼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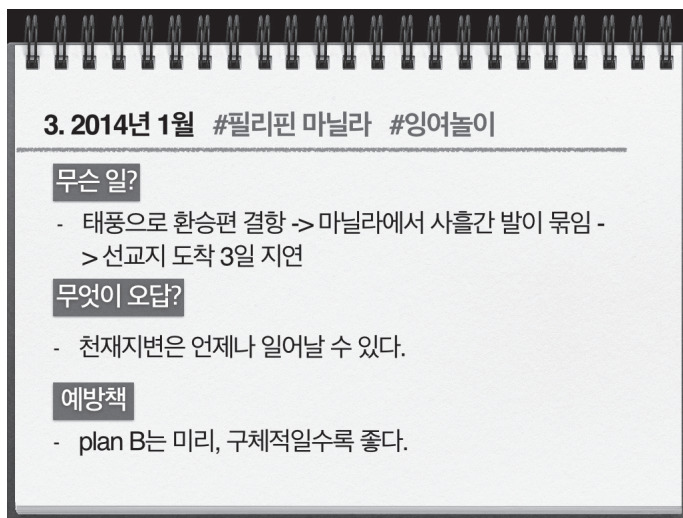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팀원들의 여권을 미리미리 체크한다. 여권만료일부터.

실제로 여권 만료일 6개월 이내의 여권을 소지한 자를 입국불허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또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ssport.go.kr/>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비행기 도착지였던 카가얀 데 오로에 태풍이 와서 마닐라에서 환승편 결항 → 다음날도 결항 → 그 다음날엔 탔다가 결항 → 다바오로 항공편 변경(서울에서 대전 갈 것을, 부산으로 돌아서 올라간 꼴) → 선교지 도착 3일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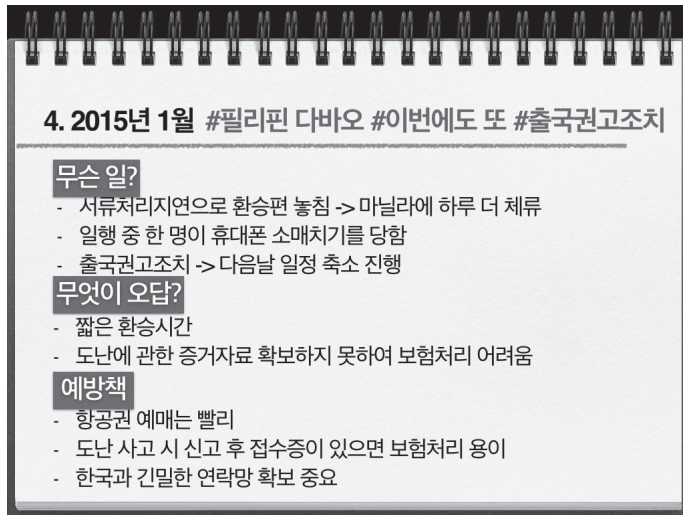
2) 무엇이 오답이었는가?

천재지변이라 딱히 오답이라 할 것은 없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바오로 멀리 돌아서 갈 생각을 조금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plan B는 미리 세워놓을수록,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 때 나름대로 마닐라에서의 체류에 대비한 현지 선교사님의 plan B가 있었기에 마닐라에서 머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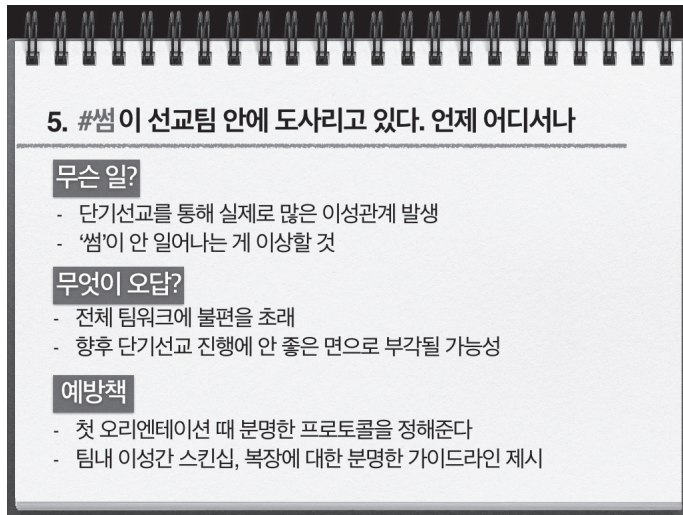
- ① 어린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입국 → 입국심사대에서 서류접수 → 입국장 직원들이 늑장부림 → 환승편 놓침(오버부킹으로 새옹지마) → 하루 마닐라에 더 머물고서 선교지 도착
- ② 선교일정 마치고서 팀원들 기념품 사라고 쇼핑몰에 풀어줌 → 한 명이 휴대폰 소매치기 당함
- ③ 외교통상부에서 민다나오 섬 한국인 출국권고조치 발령(다바오 제외) → 다바오에 머물던 선교팀은 매우 평온한 현지 분위기에서 매우 당황 → 한국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음날 휴양일정 축소 진행

2) 무엇이 오답인가?

- ① 터미널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환승시간이 두 시간밖에 없었다.
- ② 휴대폰분실도 여행자보험의 혜택범위에 있지만, 도난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 ① 항공권 예매는 빠를수록 좋다. 어차피 성수기에 선교를 가게 될 것이다.
- ② 휴대폰 분실 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 등을 챙겨 와야 보험혜택이 용이하다.
- ③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팀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행동하고, 기도모임을 통하여 상황을 공유하면서 팀을 잘 이끌고 가야 한다.
- ④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경우 <엄마카톡방>을 만드는 식으로 보호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나누는 것이 좋다.
- ⑤ 인솔 목회자가 facebook 등 SNS를 통하여 한국에서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서신을 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5. #쌔이 선교팀 안에 도사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 단기선교를 통해 실제로 많은 이성관계 발생
- '쌔'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것

무엇이 오답?

- 전체 팀워크에 불편을 초래
- 향후 단기선교 진행에 안 좋은 면으로 부각될 가능성

예방책

- 첫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한 프로토콜을 정해준다
- 팀내 이성간 스킨십, 복장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단기선교를 통해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이성관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선교를 마무리한 후에도...

쌔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것이다.

2) 무엇이 오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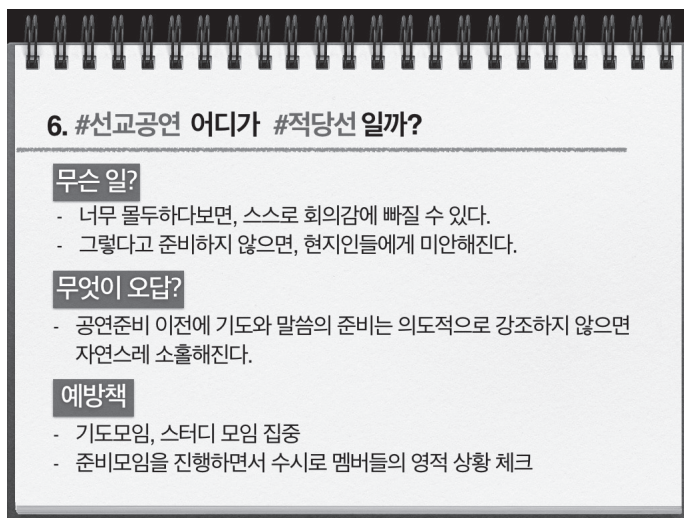
선교팀 내에서 한 커플이 지나치게 티를 낸다든지, 삼각관계가 엮인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 팀워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선교지에서 이성관계로 인한 안 좋은 소문과 상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어지면, 향후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팀이 구성되고 첫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단기선교 마친 후 일정 기간(주안교회는 2개월)> 이성교제를 절대금지 한다고 프로토콜을 분명하게 정해준다.

또한 팀 내 이성간 스킨십이나 복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6. #선교공연 어디가 #적당선 일까?

무슨 일?

- 너무 몰두하다보면, 스스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
-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현지인들에게 미안해진다.

무엇이 오답?

- 공연준비 이전에 기도와 말씀의 준비는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소홀해진다.

예방책

- 기도모임, 스터디 모임 집중
- 준비모임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멤버들의 영적 상황 체크

1)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무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 준비에만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회의에 들게 된다. <우리가 무슨 서커스 유랑단도 아니고...>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서 선교공연을 준비해가지 않으면, 또 막상 현지인들에게 미안해진다. 우리는 좋고 신나는데, 정작 현지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공연도 있었다.

2) 무엇이 오답인가?

준비모임을 하게 될 때 공연연습 이외의 것들(기도회, 공부 등)은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소홀해지기가 쉽다.

우리에게 쉽다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위주로 준비하였다(우리말 찬양).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선교 출발이 임박해지면서 공연준비가 미진해도 기도모임 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이들 율동의 경우 현지 아이들도 아는 곡, 영어찬양이 더 잘 먹힌다.

준비모임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멤버들의 피드백과 영적 상태를 체크한다.

스킷드라마는 원초적 복음제시의 측면에서 꼭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7. 과연 그것뿐일까? (기타 사례 및 팁 모음)

- ① 항공권에서 확인할 것은 이름 철자 뿐만이 아니다.
- ② 여권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③ 인천공항은 자주 '단기선교 파송의 광장'으로 변한다.
- ④ check-up 리스트는 최대한 깨알같이. 에버노트 사용 권장
- ⑤ 인원체크는 손으로 하면 자주 틀린다.

7. 과연 그것뿐일까? (기타 사례 및 팁 모음)

- ⑥ 짐가방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좋다. 짐은 섞이게 마련이다.
- ⑦ 어린이가 동행할 경우, 부모와의 소통에 신경써야 한다.
- ⑧ 환전은 미리미리. 달러가 아닐 경우 며칠 기다리는 일이 많다.
- ⑨ 매년 이어지는 단기선교를 기념할 만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기타사례와 팁 모음

- ① 비행기 티켓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름 철자뿐만이 아니다. 간혹 날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 ② 여권은 생명! 가령 비행기에서 여권을 두고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 ③ 방학시즌 월요일, 인천공항은 마치 단기선교 파송의 광장과도 같다. 최대한 일찍 가서 체크인하고 좌석을 붙여서 배정받으면 좋다.
- ④ 챙길 물건이나 할 일들을 적는 <체크업 리스트>는 최대한 깨알 같이 확인한다. 또한 에버노트를 사용하여 팀원들과 공유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다.
- ⑤ 인원체크를 눈과 손으로 하면 분명 틀릴 수 있다. 팀원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순서에 따라 자기번호를 외치게 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체크한다. (번호 배정 시 믿을 만한 친구들은 몰리지 않게 중간중간에 배치한다)
- ⑥ 짐가방에도 번호표와 식별이 잘 되는 태그를 붙여 놓으면 좋다. 실제로 공항에서 비슷한 가방이 바뀌어 애플 먹는 일들이 발생한다.
- ⑦ 어린이가 동행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일찍 배부한다. 부모들은 궁금한 게 많다.
- ⑧ 환전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달러가 아닌 외환은 원하는 만큼 은행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⑨ 주안교회의 경우 청년부실 외벽에 <해외단기선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매년 선교를 마친 후 기념액자를 만들어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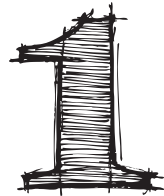
√ 노트를 닫으며

반면교사反面教師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부끄러운 실수담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선교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방법론에 비추어볼 때 제가 나눈 것들이 오답으로 비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특히나 해외로 나가는 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태도가 또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단기선교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꼭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 127:1



DAY
SEMINAR
2015.04.23

**단기선교
준비에서
정리까지**

2015년 4월 23일

발행인 | 김낙환

역은이 | 정현범

<http://www.kmcedu.or.kr>

kmcedu@chol.com